

청소년 사이버성매매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

이 나 영 · 윤 선 미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와 <세이클럽>을 중심으로 사이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실/가상공간을 횡단하면서 어떻게 주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협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이버 채팅 공간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들과 남성들 간의 만남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나이, 젠더, 계급, 시/공간의 분할선을 횡단하며 접속을 시도하고 '만남'을 거래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이버 주체들 간의 욕망의 탈주가 이루어지는 장이 아니라, 성별화된 욕망과 계급화된 젠더가 교차하는 위계적 공간이자 남성지배의 경제, 남근지배의 원칙이 작동하는 포르노그래픽적인 공간으로 '현실' 성매매와 연관된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강요받았던 성별화된 역할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애적 역할과 교차하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청소년들은 '주체'로 호명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취급되고 있는지 스스로 체화해간다. 따라서 사이버성매매는 보호주의(피해자)/자발적 성거래(위반자)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 '밖'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단련' 노동시장의 문제, 점차 증가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성별화된 욕망, 성적 거래의 기저에 놓여 있는 권력관계에 대한 여성주의적 질문과 개입을 필요로 한다.

주제어: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성매매, 인터넷 채팅사이트, 성별화된 욕망

* 본 논문은 2009년 10월 16일 한국 인터넷 진흥원 후원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사이버 문화의 급속한 전개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라는 새로운 성매매 형태를 야기하였다. 손쉬운 접근성과 개방성, 익명성, 신속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성매매는 알선자 혹은 중간매개자가 필요 없는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형 성매매와 다른 특수성을 보인다. 사이버성매매는 금품, 돈, 물질적 혜택, 사이버머니 등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 채팅, 쪽지,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한 중개, 포털 사이트 게시판 및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성매매라는 점 이외에는 ‘사이버성매매’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려운 실정이다.¹⁾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는 사이버성매매를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이버폭력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정보통신윤리위원회 편, 2006: 21-22), 청소년보호법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접촉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매매를 위한 ‘접촉’과 ‘매개’, ‘알선’ 행위 등과 거래 조건의 제시 등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실제 행위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사이버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개념화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성매매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상당수의 ‘성매매 수요자’들이 오프라인 공간보다 단속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

1)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성매매라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사이버’, ‘온라인’, ‘가상공간’,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맥락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매매 전담 부서를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전체 청소년 성매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²⁾ 이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함께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일상 속에 체화된 자유롭고 친숙한 공간이라는 특징과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사이버성매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간에 금품, 돈, 물질적 혜택(예, 숙박제공)을 대가로 성행위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남정림, 2004). 표면적으로는 성인 간의 사이버 성매매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으나, 청소년과 성인 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지위와 자원의 불평등, 청소년과 성인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이면에 내재된 폭력적인 측면(심영희, 2001)에서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³⁾

본 연구자들이 사이버성매매에서 ‘청소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현실적으로 성구매 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 청소년이 아니라 십대 ‘소녀’들이라는 점이다. 2008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총 1,226명의 성범죄 피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이 1,179명(96.2%)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

2) 2005년 서울지방경찰청의 ‘2005년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여)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332명으로, 전체 청소년(여) 성매매의 92.5%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는 성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가 전체 성매매 여성의 34%인데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민중의 소리, 2005년 10월 25일). 한편,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한 달여간 경찰청에서 실시한 인터넷 및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서도 적발된 성매매 여성 401명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10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09년 08월 19일). 최근 경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방학기간에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 성매매와 동시에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성매매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과 함께 인터넷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남녀)로서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유동적인 것이라 보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므로, 맥락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십대, 혹은 사회적 약자 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겠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지니는 특수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젠더-섹슈얼리티⁴⁾의 특수성이 무성적 주체로 가정되는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십대라는 사회적 범주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젠더-섹슈얼리티가 작동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이버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여성이라는 성별과 ‘미성년자’라는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빈곤 계급 출신이며 가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 밖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중, 삼중의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계급 등이 교차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몸이 가부장적 가족 체계와 소비자본주의 사회라는 ‘경계’ 밖에 놓이게 되면, 단순히 ‘성’으로 치환되고 이는 다시 보호 대상/욕망의 대상으로 이분화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성매매 청소년들이 놓인 물질 맥락은 삭제되고 ‘피해자’ 혹은 ‘위반자’ ‘여성’만 남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들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의 협상 지대로서 사이버 공간에 주목하여 청소년 성매매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분석하고, 사이버성매매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라는 계급, 청소년이라는 연령, 여성이라는 젠더와 사회

4) 본 연구에서는 ‘성’, ‘성적 욕망’,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맥락적으로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문화 속에서 여/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성적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감정 및 관계들을 포함하며, 타자에 의해 성적으로 정의되거나 정의되지 않는 방식이자,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 된다. 통상 섹스가 생물학적 성차, 젠더는 사회문화적인 성별, 섹슈얼리티는 성적 욕망으로 이해되나, 본 연구자들은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구성물이자 제도적 담론의 결과라는 Butler(1990)의 주장에 동의하면서(이나영, 2009 참조), 본 연구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자율적 관계를 가지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젠더-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적 교환가치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맞물리는 지점에 선 청소년들이 현실/가상공간을 횡단하면서 어떻게 자본주의, 가부장제, 나이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거나 협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⁵⁾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매개물로 작동하는 사이버 공간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현실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문제적’ 청소년들을 단순히 ‘선도보호’해야 한다는 주류 담론의 위험성을 폭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텍스트분석(textual analysis), 심층면접 및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성매매의 매개물로 ‘사이버’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10월 15일까지 대표적인 채팅 사이트 중 <세이클럽(www.sayclub.com)>과 <버디버디(www.buddybuddy.co.kr)>를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참여관찰의 결과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텍스트분석을 실시했다. 시간대에 따른 차이를 살피고자 밤 시간대(밤 11시경-새벽 3시경)와 낮 시간대(오후 1시경-오후 4시경)로 나누어 하루에 약 2-3시간씩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고 채팅 과정에 참여하여 사이버 상에서 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세이클럽>과 <버디버디>는 오랜 운영 기간과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들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채팅 사이트들이며, 경찰청 조사 결과(2006)에서도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이트로 발표된 바 있다. 이 중 <버디버디>는 십대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십대들의 채팅 사이트로, 인터넷 리서치 업체 코리안클릭(www.koreanclick.com)의 연령대별 메신저 사용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조사에서 십대 사용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05년 조사에서는

5)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거래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위치성, 요청되는 역할, 이에 저항하거나 수용, 협상하는 과정 등이 어떻게 사이버성매매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연구로 넘긴다.

<버디버디> 메신저 전체 사용률의 40% 이상이 십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채팅방에 접속하는 해당 사이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채팅 사이트 사용률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⁶⁾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주된 목적이지만, 거래 메커니즘을 (재)생산하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성매매 쉼터의 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을 만나 사이버성매매가 위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여기에 개입되는 주체들의 경험을 들어 보았다. 인터뷰 대상자는 본 연구자들이 그동안 개입해 온 성매매 상담소들을 통해 S와 P 등의 청소년 쉼터들을 소개받아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참가하고자 하는 S 쉼터의 청소년 4명과 1명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2시간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P 쉼터의 활동가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물들 중 경험 연구를 참고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온라인/오프라인, 성인/청소년/성매매 등으로 분리된 정책과 협소한 사회적 이해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청소년 사이버성매매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과 해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이 밖에도 <버디버디>는 최근까지 많은 신문기사에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2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진 버디버디”(한운조, 『매일신문』, 2007.4.5일자); “10~2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로 알려진 버디버디”(심현, 『포포스』, 2008.6.19일자); “음란물 유출 경로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같이 사용하는 ‘버디버디’ 메신저 프로그램 지목”(정상균, 『파이낸셜뉴스』, 2008.10.10일자); “김을동 의원,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인 ‘버디버디’ 지적”(정상균, 『아시아경제』, 2008.10.9일자)과 같은 신문기사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터뷰 참여자	일시	장소	진행시간	인적사항
A	2009년 10월 10일	S 청소년 쉼터	1시간 20분	19세. 중3 졸업 무렵 가출. 가출 후 친구들과 생활하며 고깃집, 호프집 등에서 주로 홀서빙 일을 함.
B	2009년 10월 10일	S 청소년 쉼터	1시간 20분	17세. 중1 겨울방학 무렵 가출. 가출 후 쉼터-집-친구집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함.
C	2009년 11월 26일	S 청소년 쉼터	1시간	18세. 중학교 때 가출한 후 소년원의 경험과 조건만남, 술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음.
D	2009년 11월 26일	S 청소년 쉼터	1시간	19세. 중학교 때 가출.
E	2009년 10월 10일	S 청소년 쉼터	1시간	활동가
F	2009년 10월 15일	P 청소년 쉼터	20분 (전화인터뷰)	활동가

2. 선행연구 고찰

1) 사이버/성매매/청소년(녀): ‘문제’에서 ‘존재’로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발족하고, 1998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존재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계기로 작동하였으며,⁷⁾ 2004년 9월 23일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가 더 이상 개인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

7)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5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청소년위원회’로 변모하였으며, 2006년 3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바뀌었고,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반 이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급속한 발전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가상공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는데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망’과 ‘몸’에 대한 연구,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중첩된 문제로서의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포르노, 사이버성매매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⁸⁾ 이후 청소년/사이버/성매매는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여성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경찰학,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각도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여러 단위의 행정기구에서도 모니터링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의 대상=청소년을 상정한 각종 국가기구에서 발간되고 있는 자료집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2001년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필두로 하여, 2003년부터는 매년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사업 효과성 검증 및 성과 분석」 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2004년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발간된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 결과 보고서」는 2004년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한 것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대규모 차원에서 이루어진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국회여성가족위원회·박경래(2007)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의의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소년들만이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위치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방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

8)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는 이선영(1999), 김명혜·이나영(2000), 이수연(2000)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물들의 한계는 ‘실태’가 구성되는 근본적인 조건에 대한 질문이 삭제된 채 ‘심각한’ 현황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descriptive) 묘사’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 ‘파악’되어야 할 ‘문제적인 존재’로 인지되어 치유와 격리, 선도와 보호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진다.

둘째, 주로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에서 주도되고 있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정보보호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노혁, 2000; 이경재, 2001; 이원숙, 2002; 도미향·윤지영, 2004; 남미애, 2005; 배기석, 2005; 심희기, 2007),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를 보거나, 교육(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이민희, 2001; 남정립, 2004; 유은주, 2004, 2005a, 2005b; 김현진, 2005; 조승희, 2007; 최순희, 2007; 한군식, 2008). 이들 연구의 의의는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험을 심층면접한 자료에 기반한 유은주(2004, 2005a, 2005b)의 연구를 제외하고 많은 연구가 주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2차 자료를 근거로 단순한 실태를 나열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현실에 대한 대처 능력을 지닌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혹은 ‘교정이 필요한 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는 심리적, 개인적, 가족의 차원에서 찾으려 한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사회문제’, ‘사회악’, ‘일탈’ 등으로 환원시키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윤리적 문제로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돈, 과시욕, 소비욕구, 성적 욕망과 자유분방한 성문화 등 성매매로 ‘이끄는’, ‘불순한’, ‘개인적’ 동기에 관

심을 가진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향락문화’, ‘음란 퇴폐문화’ 등은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사라기보다는 이미 전제된 사회문화적 조건이 된다. 십대 여성의 성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는 연구들 또한 문제적인 성으로서의 십대 여성/보호받아야 할 여성의 성이라는 이분법적 수사로 ‘남성의 본질적인 성적 욕구’와 ‘위반되는 여성의 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적이다.

셋째,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경로로 이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가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부분 기존 조사결과 및 문헌을 토대로 한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조승희, 2007; 이경희, 2007; 한군식, 2008), 윤옥경(2001)은 실제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남정림(2004)은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청소년 성매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가 청소년 성매매를 ‘윤리적 문제’로 청소년 성매매에 접근하고 있으며(이경희, 2007), ‘교육 및 가정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한계(남정림, 2004; 조승희, 2007; 한군식, 2008)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상의 공간이 어떻게 현실의 성매매와 연결되는지, 그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실패함으로써 사이버/성매매는 청소년을 매개로한 변별적 공간으로 분리된다.

위의 세 가지 연구 경향은 모두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주의적, 본질주의적 사고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본질주의적’ 사고는 문화적 영향에 오염되지 않은 섹슈얼리티의 영역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인간의 행위는 유전적, 생물학적, 육체적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둘째, 유사성을 보이

는 인간의 행위를 숨겨진 경향성의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행위는 근본적인 본질과 의미를 공유한다고 인식된다(Vance, 2006: 29). 이에 따라 사이버/성매매/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일탈’된 것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되며, 이들은 사회의 문제적 존재로서 선도보호의 ‘대상’ 이상의 주체적 위치를 갖기 어려운 존재로 재생산된다. 무엇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아동은 ‘정상적인 가족’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야 제대로 된 ‘건강한 인간 구실’을 한다는 단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신빈곤층의 증가, 가부장제의 성문화, 학교 교육의 문제 등은 근본적인 질문의 대상에서 비껴난다.

민가영(2009)은 한국에서 십대 여성을 ‘문제’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주체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을 1990년대 중반 이후라 지적한다(민가영, 2009: 11). 이는 “무성적 미성년자가 아닌 성적 주체로 조명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섹슈얼리티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부분으로 부상하게 된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데, 김현미(2002)는 십대를 더 이상 학교, 가족과 같은 근대적 공간 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 소비자본주의 시장,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비공식적 십대 노동 시장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의 등장이 소비, 관계, 성적 욕구를 지닌 주체로 십대를 바라보게 한 배경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여성주의자들은 성적 주체로서의 십대 여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기반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이효희, 1998; 민가영, 2000; 김은실, 2001; 김주희, 2006; 변혜정, 2006; 변혜정·민가영, 2007; 민가영, 2009).⁹⁾ 이효희

9) 조한혜정(2000)은 청소년에 대한 기계적인 정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청소년’에 주목한 본격적인 논문으로는 엄연수(199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범주로 설명되지 않는 여학생(여고생)만의 성별화된 특수성에 주목

(1998)의 연구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집을 나온 십대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를 매매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들을 통해 어떻게 여성 정체성이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민가영(2000)은 가출한 십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성적 실천을 어떻게 다양한 생존 전략의 수단으로, 또 여성성 형성의 중심 부분으로 구축해 내고 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김은실(2001)은 십대 여성의 성산업 유입 경로와 그들의 성적 실천의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남성 중심적 성별 체계 속에서 지니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십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위계 사회로 어떻게 흡수되어 가는가를 살피면서, 십대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 상품화의 경험이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구축되는 것이자 성산업이 호명하는 성적 주체 구성 과정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젠더로 환원되는 계급과 섹슈얼리티의 논의를 넘어, “인종, 계급이 위계화된 사회 속에서 구별을 구성하고 의미를 협상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소녀들의 젠더화된 선택”(Betty, 2003: 12)에 주목하면서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 나이 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청소년/청소녀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2009년의 민가영의 연구는 가출과 성매매 경험이 있는 빈곤층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변화를 젠더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 구체적인 계급적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부분의 여성주의 연구들의 특징은 성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을

하여, 같은 또래의 남학생과 구별되는 여성성의 통제가 부가되어 ‘여학생’이라는 정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유사하게 강보길(1997) 또한 여학교 교육의 명시적, 비명시적 과정을 통해 여학생이 (남성)청소년과는 다른 주체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청소년 개념의 남성 중심성을 비판한 바 있다.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확장한 것으로 서구에서는 주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대부분의 학문 영역에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이자 인식론적 입장이다. 사회구성론은 섹슈얼리티가 자연적인 것이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의 산물”이라고 본다(Rubin, 1997). 다시 말해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구성물‘들’이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라는 관점에 기반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역사의 산물로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이 된다. 섹슈얼리티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은 성적 정체성이 가공물이거나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자 실재가 아닌 것,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실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현실과 경험을 생산해내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들 간의 ‘역설’에 주목하는 것이다(Vance, 2006: 30).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작업은 성적 구조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전복하여 ‘본질적인’ 정체성에 관한 우리들의 경험을 재고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구성론의 장점은 기존의 지식체계와 과학적 이데올로기들이 섹슈얼리티를 주조화해 온 방식-생물학과 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인 것-에 대한 위반이자, 성적 타자의 (재)구성 방식, 이들이 포섭, 배제되는 구조를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성적 위계 체계의 해체를 지향한다. 이는 남성중심주의뿐만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도전이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이상과 같은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하여 기존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이성애중심주의 등을 비판하면서 십대 청소년들의 성적 주체성에 주목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아쉽게도 사이버성매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십대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가출과 성매매 경험에 집중되어 있고, 가상/실제 성매매 공간이 지닌 각각의 특

수성/공통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매매/성노동에 관한 연구가 200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학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이버/청소년/성매매가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시론적 작업의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의 입장은 인터넷은 모든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열린 공간이지만, 빈곤층 청소년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성적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한 후, 인터뷰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사이버성매매가 발생하는 맥락을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3. 청소년 사이버성매매: 특징 및 과정

1) 사이버성매매의 유형

최근 ‘개인형’ 성매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으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제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¹⁰⁾

10) 실제로 많은 연구와 보도자료에서 드러났는데, 2007년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상청소년이 만나게 된 방법으로 인터넷이 82% (전화방, 아는 사람 소개, 업소, 거리현팅, 기타의 순)이었고, 한 언론매체는 청소년 성매매의 94%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YTN뉴스, 2007년 2월 2일).

<표 2> 청소년들의 성매매 접촉방법

방법	2001년	2005년
인터넷(채팅)	53.5%	83.5%
전화방	2.2%	1.5%
음성사서함	13.5%	-
아는 사람 소개	6.4%	3.2%
길거리 유인	4.6%	2.0%
기타	-	3.7%
계	100.0%	100.0%

자료: 박동균(2001).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에는 66.7%의 청소년이, 2004년에는 83.8%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82.0%, 2006년에는 94.0%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승희, 2007).

사이버성매매의 유형은 첫째, 조건만남, 둘째, 채팅포털(성인화상) 사이트, 셋째, 애인대행 사이트, 넷째, 알바걸(유홍알바)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성매매 알선 커뮤니티(일반포털, 채팅사이트, 역할대행사이트, 성구매후기사이트); 2) 유홍업소구인구직 사이트(해외취업알선사이트, 외국인여성 국내취업알선사이트 등); 3) 현물을 매개로 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로 현물과 교환); 4) 탕치기 관련 공개수배 게시 사이트(손경이·다시함께센터 외, 2008: 73) 등이다. 이 중 채팅 사이트는(형식적으로나마) 성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조건만남·애인대행 사이트에 비해 청소년들의 가입이 쉽고, 즉각적으로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청소년 사이버성매매 과정에서 가장 선호되는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전통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접촉경로가 다양하고, 행위자가 상대자와 직접적인 비밀접촉이 가능

하며, 은밀성과 익명성 때문에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김성경, 1999; 박동균, 2001; 조승희, 2007).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억제할 수 있는 규범적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의 특수성을 일상화되는 사이버성매매의 측면과 연결시킨다(성동규, 2003; 조승희, 2007: 22). 사이버 성문화적 관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어떠한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남정림(2004)은 “인터넷의 익명성이 탈억제작용을 함으로써 획일화된 규범에 의해 눌러있던 성적 욕망이 표출, 성적일탈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조건만남”을 중심으로 사이버성매매를 분석한 결과 첫째, 조건만남, 장기적계약연애, (성적)노예가 되려거나 구하려는 광고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둘째, 어디서나 일어나며 일상화된 것으로 성매매 제안 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성매매 상대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인물(위험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화상채팅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넷째, 남자 청소년과 성인여성 성매매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경으로 놀이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를 들고 있다(남정림, 2004: 305-310).¹¹⁾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성인 간의 성매매와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7081호, 시행일 2006년 6월 30일)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처벌대상은 성을 사는 성인에게만 적용하며(제5조-제12조),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3조 제1항). 대상 청소년은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제14조 제1항), 보호 및 재활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게 한다(제14조 제2항). 또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를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된

11) 주은희(2002)와 조승희(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되고 있다.

다. 따라서 ‘법률상’ 청소년 사이버성매매는 청소년과 성인이라는 행위주체, 사이버 공간이라는 행위매체, 성매매라는 행위내용, 그리고 행위에 대한 처벌규칙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5)가 분류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매매 유형에 따르면 1) 청소년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형, 2) 커뮤니티 공개게시판을 통해 성매매 파트너를 구하는 공개 광고 유형, 3) 게시판을 이용 은밀한 쪽지나 일대일 대화신청을 통해 성매매를 제의하는 유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화는 성매매 제안의 주체로서 남성 성인을 삭제하고, 주체-매개자-대상과 형식을 혼재한 분석수준의 오류(level of analysis)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¹²⁾

2) 채팅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

(1) <버디버디>와 <세이클럽>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에서는 채팅과 쪽지 보내기를 통해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버디버디>와 <세이클럽>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와 행위매체에 주목하여, 사이버성매매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사이트는 청소년 성매매의 중요한 유입 통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2006)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과의 성매매 거래 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버디버디>(50.6%), <세이클럽>(40.9%), 기타(6.2%), <스카이라브>(2.3%) 순이라고 하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5세의 경우 100.0%가 <버디버디>를 통해, 16-18세의 경우에는 72.0%가 <버디버디>, 24.0%가 <세이클럽>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다고 한다(청소년위원회, 2006).

<버디버디>와 <세이클럽>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암묵적/명시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차단’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12) 이러한 분석틀은 이경희(2007)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금기선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성매매의 직접적인 통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버디버디>의 경우 타 사이트에 비해 높은 모니터 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¹³⁾ 연령별로 채팅방을 분리하거나 입장 제한을 하고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버디버디>가 십대들의 높은 이용률과 함께 언론매체 등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통로’로 지적되면서, 사이트 자체에 소위 “건전한 채팅문화 형성”을 위한 명목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다.¹⁴⁾ 이에 연구자들은 청소년 아이디를 이용한 청소년 채팅방 관찰과 성인 아이디를 이용한 성인 채팅방 관찰을 동시에 진행해 보았는데, 청소년 채팅방의 경우 실제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성인이 드물었으며, 성매매 관련 사항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니터링 보고서(2005)에서도 ‘연령별 채팅방 분리 및 입장 제한’ 전(2005년 8월 모니터링)과 후(2005년 11월 모니터링)를 비교해 볼 때, 채팅방 분리 후 청소년 채팅방에서의 성매매 감소효과가 있다고 관찰된 바 있다. 그러나 관찰 결과, 청소년 간 음란대화나 만남을 제안하는 방제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성인 채팅방>을 참여 관찰해 보면, 여전히 성매매나 만남을 제안

13) 예를 들어, <세이클럽>을 비롯한 다른 채팅사이트들의 경우 ‘2-3명’인데 반해, <버디버디>는 19명의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2003, 엄호성).

14) <버디버디>는 “사이트 내에서 청소년 성매매 및 기타 성매매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채팅문화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5년 10월 19일부터 청소년과 성인 간 채팅방 분리 및 입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만 19세 이상의 회원은 실명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채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기존에 실명인증을 받은 회원은 제외), 둘째, 만 14세 미만의 회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거친 후에 채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기존에 보호자동의를 받은 회원은 제외), 셋째, 방장권한 중 참여자 연령제한 기능이 변경되어 방장이 속한 채팅방의 연령대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령제한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넷째, 새롭게 채팅채널의 카테고리가 변경되어, 클럽, 음악, 게임채널을 제외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사랑, 낭만채널에서는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령대만 입장 및 초대가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점이다”(출처: <버디버디> 공지사항, “10월19일 채팅서비스 개편 안내”, <http://customer.buddybuddy.co.kr/notice>, 2008년 10월 18일).

하는 대화, 쪽지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다. 지역을 명시한 ‘방제’를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이버 상의 대화가 직접적인 만남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대화 상대방에게 청소년임을 밝혀도 청소년이 성인 채팅방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구심을 표하는 성인은 없었으며, 성매매나 만남을 제안하는데 개의치 않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임을 암시하는 대화명 “출가소녀”를 사용하여 채팅방에 입장하자,¹⁵⁾ 만남을 제안하는 쪽지나 대화신청이 한 번에 답장하기 힘들만큼 많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사례 C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소녀’임이 암시되는 아이디로 입장하는 순간 수백 개의 쪽지가 날아오는 것은 예사라고 한다.

... 수백 개 되요. 나중에 채팅방 나가야 되요. 그냥 그래요 애들이 컴퓨터를 들어가잖아요. 목적이 뭐가 되든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럼 쪽지가 와요. (사례 C)



<그림 1>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제목

15) ‘가출소녀’라는 대화명은 사이트 자체에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대화명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입장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출가’에서 보듯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의 금지용어들은 다양한 변주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이클럽>은 사용자들 간의 관심사 공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채팅사이트로, 연령에 상관없이 채팅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채팅방 입장 배너 옆에 “여성회원은 모든 방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 여성회원에게는 자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료로 채팅방을 구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는 전화방이나 애인대행 사이트 등에서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회원의 확보를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세이클럽>의 경우, 남성회원에게는 일정한 유료화를 하는 한편 여성회원에게는 무료서비스와 자유로운 채팅방 입장을 제공하는 등 사이트 자체가 성적 거래에 편승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채팅사이트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이버 채팅 공간은 ‘평범한’ 청소년/성인, 여성/남성 모두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열린 공간이었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청소년 채팅방이나 성인 채팅방 모두 낮과 밤의 사용자수와 사용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나드는 사이버성매매의 특징적 단면을 보여준다. <버디버디>의 경우, 밤 시간대에 비해 낮 시간대 청소년 채팅방의 채팅 인원이 적은 차이는 있었으나, 청소년 간 음란대화나 만남을 제안하는 방 제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시간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세이클럽>의 채팅방 역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밤 시간대에 개설되어 있던 채팅방이 낮 시간대에도 같은 사람에 의해 여전히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둘째, 사이버 공간은 개인 간 욕망의 구현이라는 차원을 넘어 현실의 성산업과 무관하지 않다. 두 사이트 공히 여성의 아이디를 이용해 유료전화서비스,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자들이 남성 아이디를 이용해 “차칸남자분”, “부산남자만”과 같은 여성

의 아이디로 개설된 채팅방에 들어가 본 결과, 여성 아이디로 개설된 채팅방의 경우 모두 쪽지나 채팅 사이트 내에 연결된 미니홈피를 통해 060유료전화서비스¹⁶⁾를 유도하거나 ‘음란’사이트 또는 포르노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남성들이 개설한 채팅방은 대부분 입장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 아이디로 개설된 채팅방의 경우 입장인원을 50여명 정도 설정해놓고 있었으며, 모든 대화는 쪽지나 1:1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팅방은 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만 하며 채팅방에 모인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060유료전화서비스를 유도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넷 채팅 공간이 성산업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시간의 압축성

현실 공간에서는 성매매의 유형(집창촌, 산업형 등)에 따라 경로와 시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청소년 사이버성매매의 경우 성관계까지의 경로는 상대적으로 압축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김중휘(2001)의 연구에 따르면 약 57%가 처음 인터넷에서 대화를 나누고 4시간 이내에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1시간 이내에 성관계를 가진 사례도 12%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제 연구자들의 참여관찰에서도 채팅을 시작하자마자 대다수 남성들이 ‘만남’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는 온라인 채팅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딱 한번씩은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애기 한번쯤은 해보고 그런게 더 쉽고 빠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라고 한 사례 D의 말처럼 쉽고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채팅 공간을 만남의 장으로 활용한다.

그러한 압축적 시간성은 ‘일회성 만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청

16) ‘060유료전화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정보이용료가 요구되며, 전화서비스를 통해 음란대화만을 하거나 대화 후 성매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녀 성매매의 특징과도 연관된다.¹⁷⁾ 개별적 필요에 의한 일시적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두 주체에게 명시적인 요구나 욕망을 연기할 이유는 없다. 친밀감, 희생, 타협, 협상 등의 기나긴 ‘투자’의 여정이 필요한 연애관계와 달리, 목적이 명백한 거래는 적절한 대가와 신속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대화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2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¹⁸⁾ 이 또한 친밀감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여관찰의 결과 낮에 채팅한 경우 밤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 사이버상의 접속은 낮 시간대이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눈에 띄지 않아’ 조금 더 ‘안전’한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유관하다고 여겨진다.

<표 3> 청소년 성매매 시간

시간	비율
새벽(0시-6시)	26.3%
오전(7시-12시)	10.6%
오후(13시-18시)	21.2%
밤(19시-24시)	41.9%
계	100.0%

자료: 조승희(2007).

<표 3>에서 보듯이, 현실 공간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밤(41.9%), 새벽(26.3%)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조승희, 2007), 이는 가출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숙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17) 이러한 특징은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김종휘, 2001; 유은주, 2004; 조승희, 2007), 지속적인 데이트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본의 ‘원조교제’와 달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는 만남부터 성행위까지 대부분 ‘일회성’으로 행해진다고 한다.

18) 김종휘(2001)의 연구에서는 20%가 24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가출 청소년의 경우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숙식 제공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청소년위원회, 2006; 조승희, 2007: 27).¹⁹⁾ 이는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례 D의 말처럼 사이버를 통한 성매매는 가출하여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에게 며칠 동안의 숙식을 해결해 주는 절박한 선택이 된다.

가출했을 때 돈이 없잖아요. 잘 데도 없고. 그럼 일단 해요. 만난 다음에 모텔을 가잖아요. 그럼 잘 수 있잖아요. 그럼 잠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 날. 그리고 그걸 하구 돈을 받으면 어쨌든 며칠이든 잠 잘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고 식비... 그런 거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그래서 거의 해요. (사례 D)

결국 사이버 공간은 불균등한 ‘욕망’과 ‘필요’를 지닌 위계적 주체들 간 신속한 거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들에게 ‘시간투자’는 욕망을 유예하거나 돈을 벌 기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과정이다. 협상은 신속한 거래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욕구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주체들은 이미 ‘남성’이고 이미 ‘빈곤한 어린 여성’이라는 현실 속 조건에서 배태한다. 가상은 이미 현실이고 현실은 이미 가상공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3) 성매매로의 ‘초대’ 방식

채팅사이트를 통한 접속은 탈육체화된 에로티시즘이 점차 장려되고 확산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생산의 섹스’로부터 ‘소비의 섹스’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섹슈

19) 성인 간의 성매매는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해당되지만 청소년 성매매에서는 숙식제공을 대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법률상, 직무상의 편의를 제공,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매매에 해당한다.

얼리티와 연관된 시장의존성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도색문화가 ‘이미지 문화’에 의해 접수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란 소비자로서의 선택에 내재한다는 신화를 통해 강화된다(Hawkes, 1996).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현실 공간 속의 억압적 섹슈얼리티의 두 가지 축인 일부일처제, 이성애 결혼 제도와 섹스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방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 공간에서 자율적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탈육체화된 접속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무도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이다. 그러나 가상공간의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가부장적 성관계와 안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절망적이기도 하다. 채팅공간에서의 접속과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은 성별, 나이, 외모, 행동 양식 등 가부장적 이성애 관계의 규범적 틀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피씨방가서... 가서 이제 버디버디라는 그런 싸이트를 키고 채팅원 키고 그렇게 해서 채팅하고. (방은)...거의 먼저 만들어 놔요. 여자 혼자 있으면 당연히 남자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설해 놓 다음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솔직히 여자가 혼자 방에 있는데 막 남자들이... 안 들어올 남자들은 없잖아요. (사례 C)

채팅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은 ‘방’을 개설하고 기다리며, ‘남성’들은 그들의 방에 ‘입장’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30대가 가장 많다”라고 지적인 C의 말처럼 성매매로의 ‘초대자’ 대부분은 성인 남성들이다.²⁰⁾

처음부터 ‘만남할래?’라고 했다가 ‘오늘 시간있어?’라고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구요. 그리고 어린거... 10대인걸 알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구요. 걸릴까 같아서 무서워하거나 어린애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1퍼센트? (사례 D)

20) 이는 실제 채팅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윤옥경(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들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남성 ‘초대’자가 많다는 사실은 현실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 구매자의 대부분이 성인 남성이며, 피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일치한다(<표 4> 참조).

<표 4> 청소년 성매매를 먼저 제안한 사람

제안한 사람	2001년	2006년
가해자(성인)	76.8%	71.2%
피해자(청소년)	14.8%	26.9%
미상	8.4%	1.9%
계	100%	100%

자료: 김종휘(2001).



<그림 2> 성인 남성들이 청소년을 찾는 방제목

<그림 2>에서 보듯이 남성들은 여성들이 만든 방에 입장할 뿐만 아니라, 직접 방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빠”로 때로는 “한양대” 다니는 “오빠”로, 때로는 나이의 경

계를 넘어 스스로를 “친구”로 위치시키며 상대방 여성을 초대하는 주체가 된다. 이때 “아빠”와 “오빠”, 남자“친구”는 현실 속 관계 속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남성들’의 상징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위반하는 ‘가해자’에 다르지 않음을 가상공간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대화와 관계를 리드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

여성=판매자, 남성=구매자라는 공식은 현실 속에서 여성의 성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연관되며, 여기에 ‘나이’라는 요소가 더해져 더 취약한 존재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치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취약점인 나이를 활용하는 협상력을 보이기도 한다. 사이버성매매 공간에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여성은 너무 ‘어려서’도 너무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18이 딱 좋아요. (18을 가장 선호하는 거 같아요?) 네, 한 18, 19. 그 전의 애들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싫대요...너무 어리면 애기랑 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죠. (사례 C)

청소년들은 어떤 나이가 사이버성매매 공간에서 가장 잘 ‘통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거나 때로는 나이 든 친구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성인방/청소년방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청소년방에서조차 자신의 나이를 위장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점으로 인한 인터넷상 사용계약으로 인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버디버디>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었다. 리서치업체 ‘코리안 클릭’의 2005년 ‘연령별 메신저 사용률 조사’에 따르면, <버디버디> 연령별 이용률 1위인 10대에 이어 2위가 40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버디버디> 측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코리안클릭, 2005).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한 아이디를 통해 충분히 성인방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소년/성인 간 채팅방 분리 및 입장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금지선인지를 드러내준다.²¹⁾

채팅방에서 만남으로 이어지기 위한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한다는 점 또한 현실 세계의 규정력을 증명한다(<텍스트 1> 참조). 참여관찰 결과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진을 요구하며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이는 실존인물임을 확인하고 “이쁜지”, “똥똥한지” 등의 외모를 ‘보증’ 받고자 하는 이중욕구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 D의 지적처럼 외모와 몸무게, 키에 대한 물음이 당연한 과정이 되는 것은, 가상의 이미지로 상상하는 대상과의 접촉 이상의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이다.

못생긴 여자보다 이쁜 여자가 좋은 거고 그나마 귀여운 여자가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얼굴 판단을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얼굴보고 맘에 안 들면 안녕~ ...안 그러면 얼굴을 봤는데 좀 못생긴 거 같은데 괜찮으면 그럼 몸무게를 물어봐요. 키랑. (사례 D)

이는 한편으로 “아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확인함으로써 성매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해 성을 구매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는 남성들이 채팅의 상대가 실제 자신의 삶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낯선 인물임을 확인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심리로

21) 실제로 본 연구자들이 실험해 본 결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버디버디>에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입신청 유효기간을 두고 주민등록번호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핸드폰을 통한 본인 확인전화 후 최종 가입을 승인해 준다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과 같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과 같은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이버상의 ‘접속’이 결코 실재의 만남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며, 현실의 규범이 여전히 강력히 작동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mind79: 그냥요 혹시 제 동넨가 해서
 ***mind79: 아는 얼굴이면 안되잖아요
 (2009. 10. 1.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 中)

/안녕 **7 ▶ 아 맞다
 /안녕 **7 ▶ ㅋㅋ
 /안녕 **7 ▶ 사진있어?
 /안녕 **7 ▶ ㅋㅋ
 /안녕 폰테링 ▶ 사진 없는데 여기 피씨방임ㄱ
 /안녕 **7 ▶ 싸이
 /안녕 **7 ▶ 안해?
 (2009. 9. 26.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 中)

/안녕 *머 ▶ 사진도 봤음
 /안녕 *머 ▶ 좋겠는데
 /안녕 폰테링 ▶ 어, 나 짐 사진 가진거 없는데;
 /안녕 *머 ▶ ㄷㄷ
 /안녕 폰테링 ▶ 집 나와싶피씨방에 있다니깐
 /안녕 *머 ▶ 싸이 하지 않나?
 /안녕 *머 ▶ 막 똥똥하고 그래요?
 (2009. 9. 28.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 中)

<텍스트 1> 사진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인 채팅방

(4) 성적 거래의 유형

채팅 상에서 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명시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처음부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채팅방에 들어온 유형으로 “용돈 필요한 여자분”, “머니필요분”, “가격제시”와 같은 성매매를 암시

하는 방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 <텍스트 2>에서 보듯이 채팅 시작 직후 바로 위치와 나이, 성매매 가격, 외모, 만날 장소와 시간 등을 ‘홍정’한다. 이미 명시적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제안하거나 만남을 위한 최소한의 ‘감정노동’을 삭제한 채 바로 “지금” “만남”을 원하며 금전을 제시하는 등의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ind79: 안녕
 ****ind79: 수유 어디세요
 ****ind79:]저 34세 남자
 ****ind79: 얼마에 만남 가능?
 ****ind79: 님 나이-키-체중?>
 ****ind79: 나이?
 ****ind79: 서울 어디?
 ****ind79: 수유 어디?
 ****ind79: 수유역?
 ****ind79: 저 34세 남자
 ****ind79: 만남해여
 ****ind79: 지금
 ****ind79: ?
 ****ind79: 뭐해요
 ****ind79: 님 나이-키-체중/
 ****ind79: 얼마에 만남가능?
 ****ind79: ?
 ****ind79: 잘못 찾아요
 ****ind79: 방 구해드리죠
 ****ind79: 님 돈도 필요하잖아요

<텍스트 2> 2009. 9. 25.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내용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성적인 대화나 ‘원나잇’ 요구에서 성매매 요구로 발전하는 경우이다.²²⁾ 처음부터 성매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여

22) 여기서 ‘원나잇’이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현실공간에서 만남을 가지는 ‘번개(병개)’의 일종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성 또는 동성(대부분 이성)이 현실

성과의 ‘음란채팅’, 또는 ‘원나잇’ 상대를 찾기 위해 채팅을 시작했다가 채팅 상대가 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매매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이는 첫 번째 유형에 비해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노골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채팅(음란채팅)을 하다가 현실에서의 성관계를 제안한다. 특히 채팅과 현실에서의 성관계 사이에 전화를 통해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는 일명 ‘폰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²³⁾

이러한 유형은 사이버 공간을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전희단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사이버 공간을 현실에서의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 첫 번째 유형에 비해 에로틱한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감정노동을 하는 유형으로 성매매와 성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에 쪽/당근”이라는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ID, 여성의 신체적(성적) 특성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이 보여주듯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성관계라는 점은 다를 바 없다.

***lee (한번에 쪽/당근): 지금 15?16?
 coghdcoghd: 15살
 ***lee (한번에 쪽/당근): 그럼 초경은 했지?
 coghdcoghd: ○○
 ***lee (한번에 쪽/당근): 밑에 털도 있고>?
 ***lee (한번에 쪽/당근): ㅋㅋㅋㅋ
 coghdcoghd: 근데 이런건 왜 물어봐
 coghdcoghd: ?
 ***lee (한번에 쪽/당근): 궁금해서

공간에서 일회성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원나잇’은 성매매와 달리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서로 ‘즐긴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3) 이 경우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채팅-폰섹-현실에서의 성관계로 이어지는 연결선을 볼 수 있는데, 이때의 폰섹은 실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채팅을 했던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넘어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lee (한번에 쪽/당근): ㅋㅋㅋㅋㅋ
 ***lee (한번에 쪽/당근): 넌 그런거 호기심 없어?
 coghdcoghd: 궁금하긴 하지
 ***lee (한번에 쪽/당근): ㅋㅋㅋ
 ***lee (한번에 쪽/당근): 아 니거 만져보고 싶당
 ***lee (한번에 쪽/당근): 또 보고 싶엉
 ***lee (한번에 쪽/당근): ㅋㅋㅋ
 ***lee (한번에 쪽/당근): 너 폰 있어?
 coghdcoghd: ㅇㅇ
 ***lee (한번에 쪽/당근): 너랑 폰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텍스트 3> 2009. 9. 27.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내용

세 번째 유형은 동거를 요구하는 형태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은 가출소녀라고 밝히면 “자신의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출해서 지내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거나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는 등 친밀성을 드러내거나 ‘위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만남과 동거를 요구하는 이유로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와 같은 표현을 쓰는 등 앞선 두 개의 유형이 노골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에 비해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요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동거 중 성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친해진 뒤”나 “서로 원할 때” 할 것이라며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때 성관계는 ‘성기삽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싸는 것만 도와 달라”는 등 손으로 자위하는 것을 도와달라거나 포옹이나 키스, 가슴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들은 성관계가 아닌 스킨십의 영역으로 구분 짓는다. “가벼운 스킨십”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여성을 회유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정도 스킨십은 해줘야지”와 같은 말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돈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자신(남성)의 집에서 살 수는 있으나, ‘성관계를 맺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함으

로써 결국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면상 이러한 유형은 사랑이나 친밀감이 전제된 ‘섹스’를 추구하는 듯 보이나, 결국 섹스= 종착지점이라는 지점에서는 다른 유형과 별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감정’을 이용해 최소한의 대가도 회피하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로도 읽힌다. 아래의 텍스트에서 보듯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돌봐주는 ‘아내’와 성적 상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요구하는 ‘유사 결혼관계’를 요구하는 남성들은 ‘유사 가부장’이라 볼 수 있으며, ‘성매매’라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덜어냄과 동시에 성적 욕구/삶의 필요를 잠정적으로, 그러나 안정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문제적이다.

/안녕 *봉 ▶ 가끔 한 번씩 나랑 자주면 내가 용돈 줄게 ㅎㅎ
 /안녕 출가소녀 ▶ 돈은 자야 주는 거야??
 /안녕 *봉 ▶ 얼마를 원하는대?
 /안녕 출가소녀 ▶ 음..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안녕 *봉 ▶ 액수에 따라 틀려지겠지
 /안녕 출가소녀 ▶ 당분간 집에 안 가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
 /안녕 *봉 ▶ 가끔 용돈식으로 줄 수는 있지만 많은 돈은 없어 П.П.
 (2009. 9. 30.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내용 中)

/안녕 *봉 ▶ 난 혼자 사는데 울집에서 살면되겠냉여 ㅎㅎ
 /안녕 *봉 ▶ 난 32살
 /안녕 *봉 ▶ 어디 사는댕여?
 /안녕 출가소녀 ▶ 서울\
 /안녕 출가소녀 ▶ 어디 살아요?
 /안녕 *봉 ▶ 난 춘천
 /안녕 *봉 ▶ 원룸 혼자 사는데
 /안녕 *봉 ▶ 지금어디?
 /안녕 출가소녀 ▶ 지금 서울ㅋ
 /안녕 *봉 ▶ 피씨방?
 /안녕 출가소녀 ▶ 어느 정도 재워 줄 수 있어요???
 /안녕 *봉 ▶ 혼자 사니까...나 결혼하기전까지 ㅎㅎ

/안녕 *붕 ▶ 청소나 좀 해주면 맥여주고 자워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안녕 출가소녀 ▶ 그럼 청소만 해 주면 되요??ㅎㅎ
 /안녕 *붕 ▶ 당근
 /안녕 *붕 ▶ 삼일에 한번식만 해주면됨 ㅎ
 /안녕 출가소녀 ▶ 딱진 안 해도 되요??
 /안녕 *붕 ▶ 다른 거는 글썄,...
 /안녕 *붕 ▶ 가끔 외로울 때 안아주면 더 좋고 ㅎ
 /안녕 출가소녀 ▶ 안아만 주면??ㅋ
 /안녕 *붕 ▶ 그럼 되는 거지 뭐 ㅎ
 /안녕 출가소녀 ▶ 어떻게 믿어ㅋㅋ
 /안녕 *붕 ▶ 다른 건 안바래 ㅋㅋ
 /안녕 *붕 ▶ 정말 ㅎ
 /안녕 *붕 ▶ 혼*살기 외로울뿐 ㅎ
 /안녕 출가소녀 ▶ 에이~ 그냥 청소만 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준다
 는게 이상한데ㅋ
 /안녕 *붕 ▶ 핸드폰번호 갈켜줄까?
 /안녕 *붕 ▶ 정말인데
 (2009. 9. 30. <버디버디> 성인 채팅방 대화내용 中)

<텍스트 4> 동거를 요구하는 형태

<텍스트 4>에서 보듯이, 성인 남성들과 “자주고”, “싸게 해 주”는 행위가 ‘소녀들’에게 용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은 주체 대 주체, 욕망 대 욕망 간의 ‘평등한’ 거래가 아니라 욕망하는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의 몸 간에 이루어지는 ‘불균등한’ 거래관계임을 증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여성’의 ‘일’이란 결국 ‘남성’이 “외로울 땐 안아주어야” 하며, 몸을 원할 때는 “자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게 된다. 로맨스를 가장하지만 결국은 성애적인 것이자 본질적인 남성의 성적 욕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여/성임을 깨닫고 그들의 몸/성이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또한 체화하게 된다. 사회 속에서 강요받았던 성별화된 역할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애적 역할

과 교차하는 과정을 묵도하면서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성이 어떻게 인식되고 취급되고 있는지 스스로 체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 속의 소녀들에게, 여/성으로 남는 것(돈이 되는 것) 대(vs.) 거부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는 무의미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당장 ‘살 곳’과 ‘밥’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남성들의 목적과 “어쩔 수 없이” 협상하게 되는 것이다.

‘자진 앓을테니까 우리집 와서 살라’ 이것부터 뭐가 있는거예요. 애들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가는거예요. 살게 해 주니까 가서 밥도 주니까. (사례 A)

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집안 안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애들이 집도 많이 나오고 방향 타는 거처럼. 그런 애들이 좀 많이 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주는 거도 있고 못 주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침부터 그런 거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한두 번은 무섭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적응이 되버리는 거? ‘나 어쩔 수 없어...’하는 걸로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나는 나쁜 게 아니라고. 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사례 C)

4. 결론 및 제언:

탈주와 포섭의 이중주로서 청소년 사이버성매매

결론적으로 사이버 채팅 공간은 수많은 ‘평범한’ 소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소년들과 남성들 간의 만남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나이, 젠더, 계급, 시/공간의 분할선을 횡단하며 접속을 시도하고 ‘만남’을 거래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이버 주체들 간의 욕망의 탈주가 이루어지

는 장이 아니라 성별화된 욕망과 계급화된 젠더가 교차하는 현실 공간이다. 남성들은 여전히 만남을 초대하는 자이며, 최초의 거래를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현실의 불리한 조건이 이미 전제된 제한된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다소’ 흥정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거래되는 사이버 공간은 여전히 남성지배의 경제, 남근지배의 원칙이 작동하는 포르노그래픽적인 공간이다.²⁴⁾ 따라서 이곳에서 욕망의 탈주는 ‘남성(성)’의 것이며, 청소년들은 그러한 ‘욕망’을 활용하여 ‘불행한’ 현실에서 탈주하고자 한다(사례 A). 그들이 탈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욕망하는 주체=남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의 접점이 사이버성매매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매매는 놀이나 유희의 개념”(이경희, 2007)이 아니라, 계급과 젠더, 섹슈얼리티의 교차점에서 제한된 선택지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도구이자 현실 속의 성별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에서 성행위의 기준이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남정림, 2004; 조승희, 2007: 19)이라거나 “위기 청소년의 소비욕망과 인터넷이 주는 익명성과 편리성이 만난 파괴적 결과”(이경희, 2007: 204)라는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은 단선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단기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가시적인 방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을 최대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채팅 사이트 가입을 ‘막는 것’이 그 첫 번째 가능한 대책일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입신청 유예기간을 두고 주민등록번호와 명의자가 일치하는 핸드폰을 통한 본인 확인전화 후 최종가입을 승인해 준다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속을 강

24) 김현미(2004)는 포르노그래피를 남성지배의 경제, 남근지배의 원칙이 작동하는 공간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사이버성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팅 공간 또한 그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매매전담수사대가 필요하며, 중앙점검단과 인터넷수사대, 청소년성매매전문상담소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와 연관된다(활동가 E). 또한 보건복지가족부(2008)가 밝힌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하고,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며, “열람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여전히 단속/처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자활’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몇 가지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지원시설보호 체계와 아동청소년성보호 정책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김선옥, 2008: 52).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보호서비스체계는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법률지원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²⁵⁾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양됨으로써 여성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지원 시설보호 체계와 아동청소년성보호 정책이 이분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를 통합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²⁶⁾ 또한 현재의 청소년 보호시설이 소극적 보호 시스템(소극적 구조지원)에서 적극

25) 다시 말해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도록 되어 있지만,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방지법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지원서비스를 받는다.

26) 2009년 현재 전국에 약 14개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는데,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인원 약 20명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로는 샬리홈(구세군 운영, <http://www.sallyhome.org/>), 신나는 디딤터(부산), 로렘의 집(경남 마산, <http://www.rothem03.or.kr/>), 카톨릭푸름터(<http://www.ggum1004.com/>), 범숙의 집(창원 여성의 집, <http://www.rainbowhill.or.kr/>)을 들 수 있고 그 외는 새날을 여는 쉼터 등 정원 13명 정도 규모의 시설과 이보다 적은 규모의 시설들이 있다.

적, 수용적 보호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예를 들면, 단계별 특성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호시설 운영자(관계자)의 규제보다는 수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접근이나 종교적 접근보다는 여성학적 접근이 더 필요한 실정이며, 단기적으로나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성매매방지 전문상담원 교육 등을 필요조건으로 둘 필요성도 지적된다(활동가 E).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사후적 대책은 될 수 있으나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이미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십대 소녀들의 성매매는 많은 경우 빈곤층, 사회안전망의 부재, 가부장적 가족의 현실과 연관된다(김은실, 2001; 김주희, 2006; 민가영, 2009). 중산층-이성애-가족 계급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빈곤층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부재하거나 혹은 무능한 ‘아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요구받으며 성역할을 체화한다(사례 A, B).²⁷⁾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일상적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성적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사례 A, B, D). 이들에게는 ‘학력자본’을 쌓을 마음의 여유도 물리적 조건도 없다. 미래를 위해 현재적 욕망을 유예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성적 이중규범과 자본주의의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이미 가족도 학교도 아닌 것이다. 변혜정·민가영(2007)은 기존의 중산층 가정의 모습과 역할 모델에 기반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낮은’ 계급의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의지하거나 획득 가능한 자원이 없는 그들의 ‘현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켜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주지 않으며(변혜정·민가영, 2007: 15), 오히려 ‘집 바깥세계’가 제공하는 색다른 역할

27) 사례 B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과 엄마의 부재로 인해 여동생을 챙기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엄마의 역할을 모두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변혜정·민가영, 2007: 20). “집은 답답하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고, 학교 적응은 어려웠다”는 청소년에게 학교의 의미 또한 “잠자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사례 A).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화가 되지 않는 학교나 ‘답답한’ 집과 달리, 성역할이 ‘교환가치’를 만들어 내는 바깥세상으로의 탈주는 이들에게 최선의 방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옥’ 같은 가정과 ‘감옥’ 같은 학교를 탈주하여 마주하는 세상 역시 안전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돌아갈 ‘집’도 ‘학교’도 없는 소녀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공간과 주거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가족 안에서 성역할과 성적 이중규범을 체화한 이들은 버린 몸, 상승할 수 없는 계급을 가진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남성’에게 몸/성을 거래하는 것 외에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출했다는 걸 말하면요. 그게 일단 어딜 가든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면 일단 숙식제공은 되요. 되는 데는 다 되요. 근데 돈을 다 떼어먹는 데가 많아요. (준다고 했는데?) 네... 네가 이렇게 가출을 했는데 일까지 시켜줬는데 잠까지 채워줬는데 밥까지 줬는데 넌 돈 이거 받을 생각이나. 안 준다. (일은 다 했는데...나중에 가서?) 네. 월급날 되면 안 주는 거예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장이 거의 남자잖아요. 그럼 그 사장이 만약에 일하는 직원이 여자라면 그 직원한테 안 좋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가출한 상태이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근데 아르바이트 할 때는)...같이 일하다 보면 (팔 안쪽을 가리키며) 막 이런 데를 만져요. 만지면...뭐 가슴만지는 거랑 기분이 똑같대나? 남자들한테는...여기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해?’ 이러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쁜 거예요. (사례 D)

급할 때는 집에서 나왔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하나도 없는 거. 친구 집도 이제 못가는 상태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태인 거? 진짜 어쩔 수 없는... 끝까지 가버린 거 아예 끝까지...아예 수단

이 없는...그런 경우. (사례 C)

김은실(2001)은 성매매는 성이 교환을 위해 상품이 되는, 특히 여성의 성이 양도되고 교환되는, 혹은 교환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 체제 내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 남성을 통해 사회의 이익/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돈이 곧 권력이자 권력의 원천은 남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해 간다(활동가 F).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을 경유하여 ‘일시적인’ 자원을 획득하며, 이렇게 얻어진 자원을 통해 비로소 ‘주체’로 스스로를 확인하게 된다. 성매매를 통한 벌이, 이로 인한 소비행위는 자기 정체감의 형성과 확인의 기제가 되며,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는 실질적인 생계유지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손에 잡히는 돈’을 쥐어주는 성매매는 이들에게 단순한 ‘일’을 넘어서는다. 보다 장기적인 삶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그것을 위해 현재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마모시킨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단지 ‘일’이 아니라 이들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변혜정·민가영, 2007). 다른 주체 형성의 기회마저 단절시켜버린다는 점, 대안적 ‘노동’을 상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문제적이다. 무엇보다 김은실(2001)의 지적처럼, “비명시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성적 실천과 그것을 잠식시키는 성적 실천 간에는 정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김은실, 2001: 167).

이미 과잉성애화된 사회, 외모중심주의 사회에서 십대 여성은 더 이상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프라인의 공간에서 가진 자원이라고는 ‘몸/성’ 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성적 규범, 계급적 규범, 나이차별주의에 저항하며 잊고 싶은 현실 공간(가정과 학교)을 탈주하여 “‘주체’로 ‘주목’받고 인정받길 원한다”(활동가 E). 그러나 결국 성적

대상으로 거래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현실을 지배하는 ‘세상’의 규칙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이버성매매 경험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티켓다방과 룸살롱으로 이어지는 성산업의 현장에 정박한다는 사실은(활동가 E, F) 그들이 탈주하고자 하는 세상에 다시 포박되는 현실의 ‘비정함’을 보여준다. 결국 청소년 사이버성매매는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간 성매매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성적 이중 체계, 자본주의의 현실 속의 여/성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낙인은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된다.

따라서 “잘못된 성매매 문화, 소비문화, 인터넷 문화, 개방적 성문화”(이경희, 2007)가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묵인하고 장려하는 문화, 약자에 대한 착취가 당연하고 정당화되는 구조, 일상 속에서 청소년들을 포섭하는 일상화된 성매매 문화 등에 문제제기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소비문화”, “땀 흘려 돈을 버는 대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성매매를 택하는 젊은 세대를 ‘지탄’하는 피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밖’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게 ‘단련’ 노동시장의 문제, 이들을 (재)생산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성개방 문화”를 ‘한탄’할 일이 아니라, 성별화된 욕망과 성적 거래의 기저에 놓여 있는 권력 관계를 문제제기해야 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로서의 ‘빈곤층 소녀’는 사회적 타자(계급), 성적 타자(비/성적 존재)로 자리매김되며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고 사적/공적 공간을 가로지르며 ‘이동’한다. 그들의 일상의 삶은 가상이지만 실제적인(virtual) 공간과 무관하지 않다. 이미 보호 밖의 경계로 내쳐진 이들에게 ‘보호’라는 물리적, 상징적 경계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타자화하기에 문제적이다. 상업 자본의 놀이터와 성매매 시장 이

외의 출구가 제한된 청소년들에게 열린 노동시장을 제공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민가영, 2002: 112)로 인지하는 작업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점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도 그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두는 인식도 바로 우리 스스로의 “고정된 사고의 틀”에 기인한다는 한 활동가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너무나 정형화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정상’가족에서 자라 학교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고... 대학에 갈 수도 없지만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들이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졸업장도 쥐기 전에 빚더미에 앉게 되며 이후에도 정규직을 잡지 못해 고생하는가? 왜 그들을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인데, 사람들은 이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학진학을 이야기한다...사실 경제적 자립 자체가 그들이 지닌 현재의 계급을 넘어서는 일인데... (사례 E)²⁸⁾

그러므로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이버/성매매 공간보다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공간, 대안적 공간을 마련해 줄 책무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그것은 사이버성매매를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기저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해체에서 비롯될 것이다.

28)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청소년 자립을 위한 자립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학교 제도에서 이미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 시스템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한다(사례 E).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9월에 문을 연 <늘푸른 자립학교>는 여러 곳의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통합형 대안학교로 연구자들의 인터뷰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강보길(1997), 『교육현장에서 여학생의 성별화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경찰청(2006),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 미간행.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온라인 채팅 분야 - 자살 / 불건전 만남”, 『2006년 상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1: 채팅 분야』, 227-250쪽.
- 국회여성가족위원회(편), 박경래(저)(2007),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김명혜 · 이나영(2000),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교차 지점에서 본 사이버 성 폭력”, 『사이버문화와 여성』, 윤선희, 이수연(편), 서울: 한나래.
- 김선옥(2008),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발표문(2008.11.14).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중휘(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2호, 55-75쪽.
- 김주희(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 제14권, 133-181쪽.
- 김현미(2002), “청소년기와 섹슈얼리티”,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서울: 지식마당.
- _____(2004), “로맨틱한 환상. 포르노그래픽한 일상, 에로틱한 이상에 대해”,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편, 『여성과 섹슈얼리티』, 서울: 늘푸른여성지원센터, 31-52쪽.
- 김현진(200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남미애(2005),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사회적 지원 방안”,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문집』, 제23권 2호, 311-342쪽.
- 남정림(2004),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과 행위자 전략에 관한 성문화적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 연구』, 제11권 2호, 301-320쪽.
- 노혁(2000), “가출여자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 『학교사회사업』, 제3호, 51-84쪽.
- 도미향 · 윤지영(2004),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1호, 19-33쪽.
- 민가영(2000), 『10대 여성의 가출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_____(2002), “성매매화된 사회 속의 소녀들”, 생각의 나무, 『당대비평』,

109-122쪽.

_____(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5권 2호, 6-35쪽.

박동균(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제3권, 39-67쪽.

박성민, 『연합뉴스』 2009.8.19일자 사회면: 경찰, 인터넷성매매 1천688명 적발.

배기석(2005), “청소년 성보호법의 운용상 문제점 검토 및 입법론”, 영산대학교, 『영산논총』, 제15집, 1-26쪽.

변혜정(2006), “10대 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 - 10대여성의 가출의 의미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자료집 발표문 (2006.6.2),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편.

변혜정 · 민가영(2007), “청소년 가출 의미에 대한 연구: 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5-37쪽.

보건복지가족부(2008), 『인터넷모니터링 보고서: 일반사이트 및 커뮤니티 분야』, 보건복지가족부.

성동규(2003), 『사이버 공간과 새로운 문화』, 서울: 한국통신문화재단.

손경이(2008),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현황 및 시사점 - 인터넷성매매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안마련』 자료집 발표문(2008.11.14), (사)탁틴내일 · 국회의원 최영희 공동주최.

심영희(2001), “청소년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 하계학술회의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자료집 발표문(2001.8.24).

심현, 『포포스』 2008.6.19일자 인터뷰/속보면: 버디버디 조수연 실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 확산”.

심희기(2007),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23권 4호, 22-24쪽.

엄연수(1997),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엄호성(2003), 『청소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 미성년자 즉흥적 성매매를 조장하는 조건만남, 그 실태와 대책은?』, 2003 국정감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료.

유은주(2004), 『성매매 청소년의 경험과정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_____(2005a), “성매매 청소년의 자의식 탐색”,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학연구』, 제16권 1호, 195-224쪽.

_____(2005b), “성매매 청소년의 체험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학연구』

- 구』, 제12권 3호, 143-163쪽.
- 윤옥경(2001), “인터넷채팅공간에 나타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한국청소년정책학회, 『청소년정책연구』, 제2호, 69-93쪽.
- 이경재(2001),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2호, 31-54쪽.
- 이경희(2007), “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윤리학회, 『윤리연구』, 제65호, 239-270쪽.
- 이나영(2009),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섹슈얼리티: 역사화 정치학의 이론화”,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82호, 10-37쪽.
-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2호, 99-130쪽.
- 이선영(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배제 구조와 저항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수연(2000), “사이버 포르노와 여성: 사이버 포르노의 수용에 있어 인식론과 젠더 논의”, 윤선희 · 이수연 편저, 『사이버문화와 여성』, 서울: 한나래.
- 이원숙(2002), 『청소년 성보호와 사회복지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02.5.24).
- 이정일, 『아시아경제』 2008.10.9일자 정치면: [국감] ‘버디버디’ ‘푸르나’로 돈보인 김을동 의원.
-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유흥업소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편(2006), 『2006년 불법·청소년유해 정보 실태조사』.
- 정상균, 『파이낸셜뉴스』 2008.10.10일자 IT/과학면: 파일공유 사이트서 음란물 버젓이 유출.
- 조승희(2007),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 제19집, 18-41쪽.
- 조한혜정(2000),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하나의문화, 169-194쪽.
- 주은희(2002), “성매매 세계로의 10대의 유입”, 손승영 외 5인 공저, 『오늘날 청소년의 성을 읽다』, 양평: 미래인력연구원, 지식마당.
- 진미, 『민중의 소리』, 2005.10.25일자 사회면: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심각한 수준 -서울지방경찰청 ‘2005년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결과’ 발표.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청소년 채팅사이트 및 스팸실태”, 『2003년 인터넷 모니터 종합 보고서』, 31-55쪽.
- _____(2004),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 결과 보고서』.
- _____(2005a), “온라인 채팅 분야 - 청소년 잔혹성, 불건전 만남 실태 모니

- 터”, 『2005년 상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1 : 채팅, 커뮤니티 분야』, 155-209쪽.
- _____(2005b), “온라인 채팅 분야 - 음란성 및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니터”, 『2005년 하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1 : 채팅, 커뮤니티 분야』, 3-35쪽.
- 최순희(2007), 『청소년성매매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코리아 클릭(2004), 『인터넷 메신저 사용률 조사 보고서』, 코리아 클릭, 미간행.
- _____(2005), 『인터넷 메신저 사용률 조사 보고서』, 코리아 클릭, 미간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제48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간행.
- 한군식(2008),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연구』,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한윤조, 『매일신문』 2007.4.5일자 여성·생활면: [한윤조의 수다수다] 메신저.
- Butler, Judith(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Hawkes, Gail(1996), *A Sociology of Sex and Sexuality*, 『섹슈얼리티와 사회』, 임인숙 옮김, 서울: 일신사, 2005.
- Rubin, Gale(1997), “The Traffic in Women: Not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ex,” in Linda Nicholson(ed.), *The Second Wave: A Reader in Feminist Theory*, New York: Routledge, pp. 27-62.
- Vance, Carole(2006), “Problems in the History of Sexuality,” in Inderpal Grewal and Caren Kaplan(eds.),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Gender in a Transnational World*, New York: McGraw Hill.
- 버디버디(인터넷 채팅 사이트) <http://www.buddybuddy.co.kr>.
- 세이클럽(인터넷 채팅 사이트) <http://www.sayclub.com>.

(투고일: 2009.10.11, 심사일: 2009.10.23, 게재확정일: 2009.11.16)

ABSTRACT

**The Mechanisms of Girls' Prostitution through Cyber Space:
Feminist Perspectives on Internet Chatting Sites**

Na-You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Sun-Mi Yun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analyze girls' prostitution through cyber space, focused on internet chatting sites which function as a site of resistance against and negotiation with their age, class, gender, and sexuality. Cyber space as a virtual reality mediates an encounter between girls and adult men and leads to 'real' prostitution. Particularly on chatting sites, men and girls bargain with each other about the price of the young women's body and sexuality across the boundaries of age, class, gender, and virtual/reality.

However, chatting sites are not just a space of neutral and natural desire for subjects of free will, but instead, a site of gendered sexuality and gendered class for people in an asymmetric relationship attributed to limited resources and material conditions. Such unequal power relationships construct and reconstruct the meaning and practice of their 'encountering' and 'bargaining' on the pornographic cyber space, which lead to off-line prostitution. Throughout the process, lower-class girls come to realize and embody how women's body and sexuality are treated and transacted in a capitalistic (consumer) as well as a patriarchal society.

As a result, the increasing class gap under neoliberal capitalism, the closed labor market for teenage girls, and the normative ideologies of family, gender, and sexuality should be examined and challenged by feminist research and practice in order to bring an understanding of the 'real' picture of cyber prostitution beyond the paradigm of protection/exclusion, victim/violator/voluntary prostitute.

Key words

Teenage girls, Cyber space, Prostitution, Consumer society, Gendered sexuality